

■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구조

김 걸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성장과정과 도시의 내부구조를 고찰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다양한 도시화 과정과 도시변화를 살펴보고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특징적인 내부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북미나 한국의 도시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

1990년 카리브 지역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총인구는 4억4천만이었으며, 1960년 인구의 두 배가 되었다. 이 기간에 라틴아메리카는 농촌인구가 우세한 지역에서 도시화된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1990년에는 71.4%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였고 2010년 현재 75.8%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거주인구의 4명 중 3명이 도시에 살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도시화의 추세는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특성을 가진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인구는 대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되었고, 농촌지역보다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90년에는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2001년 가속화된 도시화 추세는 2010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도시화변화율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특징을 가진다(〈표 1〉 참조). 전체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도시화율은 경제성장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브라질, 멕

〈표 2〉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1950~2010년)

국 가	도시 인구 (000)			도시화율				도시화율 변화		
	1990	2001	2010	1950	1990	2001	2010	1950-1990	1990-2001	2001-2010
Caribbean										
Cuba	7,801	8,482	8,531	49.4	73.6	75.5	75.7	24.2	1.9	0.2
Dominican Republic	4,293	5,615	6,410	23.7	60.4	66.0	69.8	36.7	5.6	3.8
Haiti	1,855	3,004	4,110	12.2	28.6	36.3	48.2	16.4	7.7	11.9
Jamaica	1,217	1,470	1,445	26.8	51.5	56.6	53.5	24.7	5.1	-3.1
Puerto Rico	2,518	2,987	3,900	40.6	71.3	75.6	98.6	30.7	4.3	23.0
Trinidad & Tobago	104	144	182	5.0	8.5	11.1	13.6	3.5	2.6	2.5
Central America										
Costa Rica	1,429	2,448	2,920	33.5	47.1	47.8	63.8	13.6	0.7	16.0
El Salvador	2,269	3,935	4,394	36.5	43.9	61.5	61.0	7.4	17.6	-0.5
Guatemala	3,628	4,688	6,174	29.5	39.4	48.6	49.0	9.9	9.2	0.4
Honduras	1,985	3,351	3,480	17.6	40.7	53.7	48.3	23.1	13	-5.4
Mexico	61,335	74,846	83,933	42.7	72.6	74.6	77.5	29.9	2	2.9
Nicaragua	2,197	2,943	3,128	34.9	59.8	56.5	57.0	24.9	-3.3	0.5
Panama	1,240	1,639	2,392	35.8	51.7	56.5	74.0	15.9	4.8	17.5
South America										
Argentina	28,158	33,119	35,725	65.3	86.5	88.3	92.2	21.2	1.8	3.9
Bolivia	3,665	5,358	6,060	37.8	55.8	62.9	66.0	18	7.1	3.1
Brazil	110,789	141,041	161,092	36.0	74.6	81.7	86.0	38.6	7.1	4.3
Chile	10,954	13,254	14,454	58.4	83.3	86.1	88.7	24.9	2.8	2.6
Colombia	22,604	32,319	34,153	37.1	70.0	75.5	74.8	32.9	5.5	-0.7
Ecuador	5,625	8,171	8,757	28.3	54.8	63.4	66.2	26.5	8.6	2.8
Paraguay	2,109	3,194	3,750	34.6	48.9	56.7	60.9	14.3	7.8	4.2
Peru	15,068	19,084	19,997	35.5	69.8	73.1	71.5	34.3	3.3	-1.6
Uruguay	2,751	3,097	3,200	78.0	88.9	92.1	92.4	10.9	3.2	0.3
Venezuela	17,636	21,475	26,584	53.2	90.4	87.2	93.7	37.2	-3.2	6.5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otal)	314,161	399,269	444,771	41.6	71.4	75.8	77.2	29.8	4.4	1.4

출처: Pacion, M., 2009, Urban Geograph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102 와 〈<http://data.worldbank.org/>〉 의 자료를 재구성.

시코, 콜롬비아 및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빠른 도시화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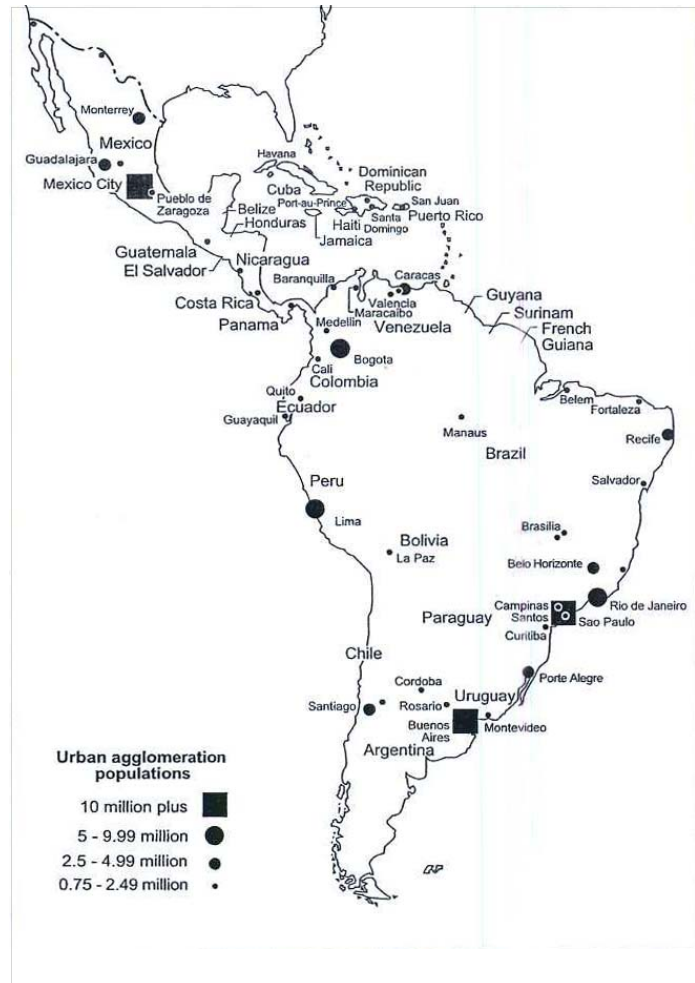
도시화단계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가장 도시화가 진척된 국가로 2010년 도시화율이 80% 이상인 국가들이다. 푸에르토리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6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급격한 이민이 있었고 이민자들에게 농토취득 기회가 적게 주어지면서 다수의 이민인구가 도시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도시화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던 농업국가에서 산업성장을 이룬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는 인구의 50~80%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국가들로, 1950~1990년대에 빠른 도시화와 산업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다.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도시화율이 50% 이하인 국가로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이다. 이들 국가는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며 산업발전이 늦다는 특징을 가진다.

1990년에 라틴아메리카는 3억 명이 도시민이었으며, 도시민들은 주로 36개의 100만 이상 도시에 거주하였다(〈그림 1〉). 라틴아메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5개 중 2개(상파울루와 멕시코시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50개의 가장 큰 도시 중 8개를 가지고 있다. 상파울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우월적인 경제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멕시코시티가 두 번째 큰 경제적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인구는 1900년에 비해 1990년 현재 20배로 증가하였다. 그 기간 동안의 도시 성장은 멕시코시티와 키토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개척한 도시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20세기 동안 진행된 도시 시스템의 재구조화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작은 도시들이 성장함으로써 도시인구가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브라질에서 브라질리아는 1958년



〈그림 1〉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중심도시

정치적 수도로 건설되었다.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는 1800년에만 해도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다. 벨루오리존치(Belo Horizonte)가 19세기 말에 새로운 도시로 조성되었으나 포르탈레자(Fortaleza)나 쿠리치바(Curitiba)는 19세기에 주도가 되기 이전에 중요하지 않은 마을이었다.

멕시코에서도 도시계층의 재구조화로 인해 새로운 도시가 생성되고 있다. 경제와 정치권력의 중심지인 멕시코시티보다 미국 국경의 도시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인구분포와 도시인구의 분포는 멕시코 북부와 미국 국경도시의 경

제적 상호작용에 의해 급변했다. 멕시코 북부의 인구 집중 증가는 마킬라도라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미국국경지역에 근접하여 강하게 집중되었다. 즉, 미국과 접한 36개 지자체의 인구는 1930년에서 1990년까지 14배로 늘어, 1930년 28만 명에서 1980년 290만 명, 1990년에는 4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마킬라도라는 1960년대 중반에 생겨났으며, 멕시코 정부의 국경지역 산업발전 프로그램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경지역의 공장은 기계류와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하여 관세 없이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부분의 마킬라도라는 미국 기업 소유였으며, 미국 관세의 미부과 혜택을 볼 수 있었다. 1967년 100개 이하의 공장과 4,000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1990년대에는 2,000개의 공장과 50만 명의 근로자를 가진 규모가 되었다. 1980년대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멕시코 통화 가치의 저평가는 산업과 농업 분야의 수출 또한 증대시켰다. 1970년대 초반부터 마킬라도라는 국내 건설이 가능해졌고, 1989년까지 국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국경에서 떨어진 몇몇 도시들은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되었다. 이를테면, 새로운 오토바이 수출 공장이 치와와, 에르모시요 그리고 살티요에 세워졌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요 대도시지역은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생산과 인구의 탈중심화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탈중심화의 경향이 심화되었다. 즉, 미국 핵심지역의 인구 및 생산 탈중심화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멕시코시티 지역에서의 광역도시화는 다핵으로 확장되는 대도시권을 생성하는 영토적 재구조화의 과정과 관계된다. 팽창된 도시시스템과 통합된 도로네트워크는 도시 간 사람·상품·자본의 흐름을 촉진하고 농촌과 도시활동 간의

차이를 감소시켰다.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구는 중소규모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1991년의 아르헨티나 인구센서스는 46.5%의 인구가 100만보다 적은 중소규모의 중심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18%는 10만 이하의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100만 명 미만 중소규모 도시는 도시규모와 성장률 및 경제적 기반에 있어 큰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중소규모의 중심도시는 수천 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인구거주도시에서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의 수출용 옥수수를 생산하는 농업지역을 지원하는 도시인 멕시코의 사모라(Zamora)가 있다. 토지소유패턴은 고부가가치 작물생산이 지역의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정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많은 수의 작지만 생산적인 집약적 생산을 하는 농부들은 지역 도시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반면, 대토지 자산 또는 플랜테이션은 해외를 포함한 멀리 떨어진 도시에 많은 경제적 자극을 준다.

또한 도시는 상당한 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콰우틀라(Cuautla)는 1940년 18,000명의 작은 시장마을에서 1991년 12만 명을 가진 중소규모의 관광중심도시로 성장했다.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다.

라틴아메리카 도시변화의 규모와 특징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성과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대도시지역은 비교우위를 가진 새로운 중소규모 도시의 출현으로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새로운 중소규모의 도시들은 관광 중심지나 수출주도형 제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수출용 농업과 관련된 이

운을 얻을 수 있는 중소규모의 중심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내부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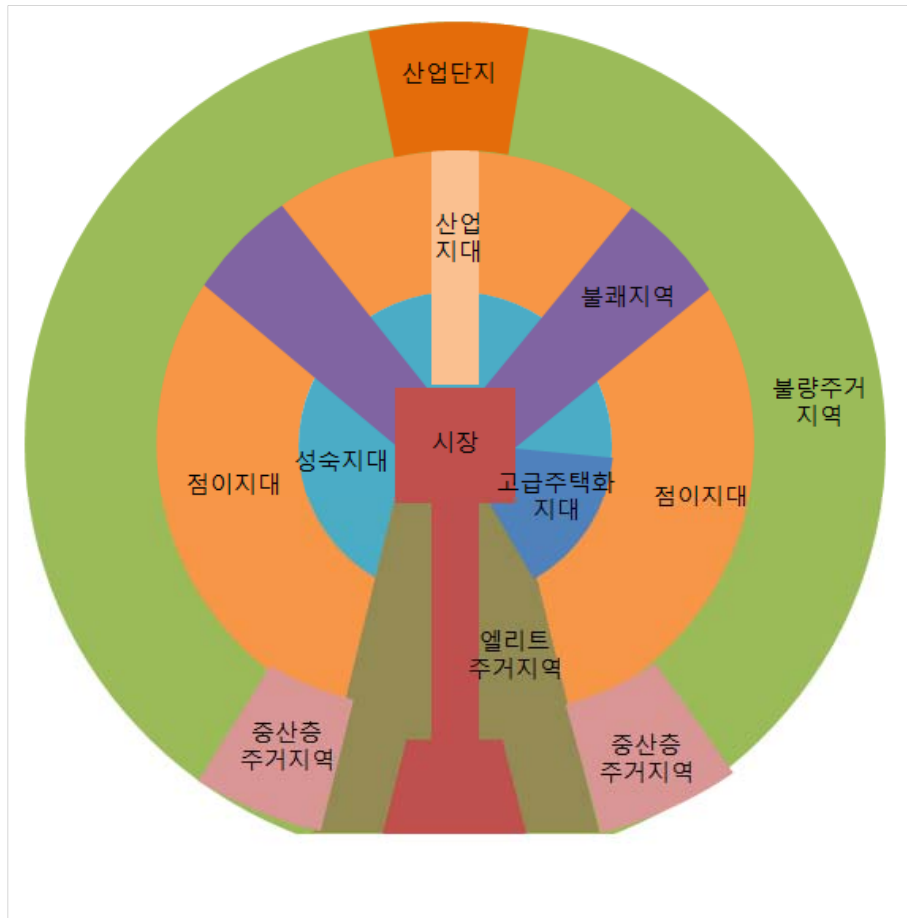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는 단일하고 동질적인 현상이 아닌 여러 복합적 특징이 얽혀 있는 과정으로 설명돼야 한다. 즉 세계경제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특징 간의 관계를 반영하여 설명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주요도시의 내부구조를 고찰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도시가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스페인 정복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태고의 도시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지리에 대한 콜럼버스 이전문화의 영향은 유럽의 정착촌이 건설된 내륙의 보고타나 멕시코시티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업적 식민주의의 도래는 내향적인 토착도시 체계로부터 리마나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항구도시로 방향을 전환시켰다. 식민 유산은 도시의 물리적 위치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Griffin과 Ford(1983)가 언급했듯이, 어떤 다른 문명지역보다도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공통적인 도시구조를 가지며, 이는 그들의 식민지적 뿌리에서 기원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의 식민기간 동안 도시는 인디아스 법에 의해 통제되었고, 중앙광장 주변의 격자형 도로패턴과 그 주변으로 모든 주요한 관공서 및 상업활동 시설과 사회적 편의 시설이 군집되도록 강제되었다. 그 결과 고용기회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었다. 중심부로의 거주지 근접성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Sjoberg의 전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패턴은 많은 소규모의 라

틴아메리카 도시의 특징으로 남아 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도시의 도시화와 도시성장은 라틴아메리카 도시를 근대화하고 전통적인 도시형태를 변형시킨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Griffin과 Ford(1980)는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Ford(1996)에 의해 수정되었는데, 전통적인 도시구조의 요소를 근대화 과정의 효과와 결합시키려는 모델이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모델은 상업지역이 중심지역을 가로지르며, 엘리트 주거지역이 중심지에 집적되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거의 질이 낮아지는 일련의 동심원지대 형태를 그 특징으로 한다.

○ 도심과 도시내부: 도심은 현대화된 중심상업지구(CBD)와 전통적 상업지구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소로 지향형 사업과 거대구조물 간의 물리적 대조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북미 대도시와 달리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CBD는 주요한 고용, 상업 및 오락의 중심지로 남게 되었다. CBD의 상대적 우위는 대중교통망이 CBD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산층 인구가 도시내부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북미 도시들의 경우 CBD의 주변부는 슬럼이나 불량주거지역이 위치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도시 CBD의 주변에는 부유한 중산층인구가 거주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CBD 주변은 인구감소나 경제적 쇠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도시내부는 상업지구가 제공하는 경제적 역동성을 보이는데, 값싼 식품, 의류, 도매 및 소매 시장 및 작은 규모의 작업장과 과자상점 등이 위치한다. 도시내부는 수많은 재화와 비공식 경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내부는 런던의 코크니 이스트엔드(Cockney East End)나 뉴욕의 브롱크스 유대인 노동자 지구와 유사한 도시



〈그림 2〉 라틴아메리카 도시모델

출처 : Ford, L., 1996, "A New and Improved Model of Latin American City Structure", *Geographical Review*, 83(3): 437-40.

문화전통을 가진 안정적인 노동자계급 커뮤니티를 수용한다. 또한 새로운 이주자들의 접수처 역할을 하며, 이는 거주 인구의 유지를 돕는다. 북미나 영국의 도시내부에는 도시문제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도시내부에 도시문제가 집중되지 않는다.

○ 상업지대와 엘리트 주거지역: 도시구조의 지배적인 요소는 상업지역과 산업지대이며, 이들은 CBD로부터 외곽으로 확장되는

엘리트 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세 개의 대로는 도시의 중요한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개인 병원, 호텔, 박물관, 극장 및 거의 모든 전문적 엘리트 계층 및 상위 중산층 주택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지역지구제 통제는 엄격하게 집행된다. 상업지대의 엘리트 주거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하의 중산층에 의해 대체된다. 기존의 엘리트 주거지역은 중산층의 전입으로 여과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산층 주거지역은 노동자계급의 주거지로 하향이동되며, 주변부는 불법 정착민이 거주하게 되어 계급간의 완충지대가 필요하게 된다. 엘리트 주거지역은 서양식의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라틴아메리카의 중심성을 보전하려 한다. 따라서 폐쇄적 공동체의 형태를 띠어 울타리나 담벼락으로 구분되는 독특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근교로의 교통로 확장에 따라 쇼핑센터가 도시의 근교에 위치하게 된다.

○ 산업지역: 산업지역은 철도나 고속도로 등의 간선도로망을 따라 위치하게 되며 많은 공간이 필요한 공장이나 창고는 근교에 위치하고 도시외곽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한다.

○ 도시주변부: 산업단지와 쇼핑몰은 순환도로로 연결된다. 비록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이 주변 고속도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고속도로 주변의 개발은 기반시설의 팽창과 불량촌의 개량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비록 순환도로가 도시 전체를 완전히 둘러싸지 않아도, 이 지역의 엘리트 주거지역은 오래전에 조성된 커뮤니티와 새롭게 개발된 계획지구로 경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 주거지역: 북미의 도시들은 외곽의 근교에 중산층 주거지역이

위치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은 도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주택의 질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1. 성숙지대: 성숙지대는 양호한 주거지역으로 예전에 엘리트계층이 거주하던 지역이 차하의 계층주택으로 여과된 지역이다. 엘리트 주거지대의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중산층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을 개선하여 거주하게 된다. 이처럼 엘리트계층이 거주하던 지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거주하게 되는 여과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여과과정의 반대과정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이는 도시내부의 쇠퇴지역에 중산층이 다시 진입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북미도시의 특징이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숙지대에는 포장도로, 가로등, 하수시설, 학교 및 대중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2. 점이지대: 성숙지대가 안정적이라면 점이지대는 거주자의 이동과 생활방식 및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점이지대는 주택의 유형, 규모, 그리고 질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3. 중산층 주거지역: 중산층 주거지역은 엘리트계층의 주거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도시외곽 근교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다. 중산층 주거지역은 점이지대나 근교의 산업단지 부근에 위치하기도 한다.
4. 주변의 불법 주거지역: 이 지역은 가난한 이민자를 수용하며 주택의 질이나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불법 주거지역은 쾌적성이 낮아 점이지대에 합병되지 않은 채 도시외곽에 슬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의 파벨라(favelas) 지역이 대표적인 불법 주거지역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라틴아메리카 도시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경쟁 속에서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 도시내부구조 또한 식민지의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독특한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을 계승한 형태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김 결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 연구본부 책임연구원
